



국내 주요 종합일간지의 이념 성향에 따른 15대부터 20대 대선까지의 뉴스 보도량 및 이슈 현저성의 편향에 대한 통시적 분석

이신행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A Diachronic Analysis of Bias in News Coverage and Issue Salience across the 15th through 20th Presidential Elections by Ideological Affiliation of Major Korean Newspapers*

Shin Haeng L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We cannot ignore the role of the media in deepening ideological and political divides in our society. Recently,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media is largely responsible for the deepening of conflicts and divisions in our society, which are driven by politics and ideology. This stems from the criticism that media partisanship manifests itself in reporting attitudes that foster ideological confrontation and political conflict between conservatives and liberals. In other words, the media determines the direction of its reporting according to its political ideology and provides information biased toward a particular political faction or ideology, causing the loss of balance of diverse opinions in society. But has media partisanship reflected ideological conflicts? This study analyzes the news coverage of the last six presidential elections to examine the political bias of the media and how it has changed over time. Presidential election coverage constitutes an important source of media political bias and provides useful data for understanding how media political bias changes by tracking reporting attitudes. In particular, we examined whether the ideological bias of major Korean media organizations manifested itself in partisan reporting attitudes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diagnosed how it affected the deepening social divid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nine national daily newspapers using the Korea Press Foundation's BigKinds service to search for election-related articles for the entire period from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in 1997 to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in 2022. We limited each presidential election to a contest between conservative and liberal parties and categorized the articles into those that mentioned both candidates of the major parti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8538].

** shinlee@cau.ac.kr

and those that mentioned only one candidate. We measured media partisanship in two way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First, we measured the volume bias index to see how the political bias of each news organization has changed in quantitative terms. For the qualitative dimension of political bias, we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issue prominence among media organizations for each presidential election and examined how it changed. We found that quantitative coverage bias varied more across presidential elections than across media organizations and was related to the public opinion landscape. We also found that media partisanship, as measured by issue prominence bias, varied significantly across presidential elections, with the gap between conservative and liberal media being particularly pronounced in the 17th and 19th presidential elections, but narrowed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ideological orientation of the media is partially expressed in political bias, but it is not an absolute form, and the partisanship of the media has changed depending on the political system and public opinion terrai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discuss the impact of media political bias on division and conflict in Korean society.

Keywords: Press Partisanship, Presidential Election, Coverage Bias, Issue Saliency, Ideological Conflict

국문초록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정치와 이념 간의 갈등으로 더욱 깊어지는 데에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언론 정파성의 심화가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적 대립과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다. 즉, 언론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보도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이념에 치우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다양한 의견의 균형을 잃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언론의 정파성은 이념적 대립을 반영해 왔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최근 6차례에 걸친 대통령 선거에서의 뉴스 보도를 분석하여 언론의 정치적 편향과 그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선 보도는 언론의 정치적 편향이 드러나는 중요한 대상이며, 보도 태도를 추적하여 언론의 정치적 편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국내 주요 언론사의 이념적 편향이 대선 정국에서의 정파적 보도 태도로 나타났는지 파악하여 깊어지는 사회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진단했다. 데이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서비스를 이용해 1997년 15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선거 관련 기사가 검색되는 전국 종합일간지 9곳으로부터 수집해 마련되었다. 그리고 각 대선을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대결로 국한하여 대표 정당의 후보 모두가 언급된 기사와 한쪽 정당의 후보만 언급된 기사로 분류했다. 그리고 언론 정파성을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먼저 보도량 편향 지수를 측정해 각 언론사의 정치적 편향이 양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나타났고 변화했는지 살펴보았다. 질적 차원의 정치적 편향은 언론사들 간의 이슈 현저성 분포를 대선마다 도출하고 그 변화 양상을 살펴 파악했다. 분석 결과, 양적 차원의 보도량 편향은 언론사 간의 차이보다 대선 간의 편차가 크고 선거 판세와 연관돼 있었음을 발견했다. 또한 이슈 현저성의 편향으로 측정한 언론의 정파성은 대선마다 큰 변화를 보였으며, 특히 17대와 19대 대선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격차가 뚜렷했지만 20대 대선에서는 이 격차가 줄어들었음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언론의 이념 지향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일정 부분 발현됐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형태는 아니며 정치 체계와 여론 지형에 따라 언론의 정파성이 변화해 왔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핵심어 : 언론정파성, 대통령선거, 보도량편향, 이슈현재성, 이념갈등

1. 들어가며

우리 사회의 대립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리서치가 지난 2023년 5월 23일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과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계층갈등이나 남녀갈등, 세대갈등 등을 제치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갈등으로 꼽힌 것이다(한국리서치, 2023). 특히 여야갈등은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2022년 조사에 비해 5% 높아져 응답자 절반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갈등의 심각성 측면에서도 다른 갈등 유형에 비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사실 사회갈등의 심화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가장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갈등의 축이 정치와 이념의 갈등이라는 점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성숙도와 민주주의 수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 문제는 정당 간의 협력과 협치가 아닌 소통의 부재와 대결을, 나아가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이념적 대립과 반목이 만연한 작금의 우리 사회 현실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책 논의와 사회 통합을 위한 책임 정치는 실종되고 오히려 대결 국면을 이용해 자기 진영의 논리와 상대에 대한 적의로 정당성과 지지를 획득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작금의 형국을 보여주는 결과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갈등으로 지목되고 있는 여야갈등과 이념갈등에 있어 언론은 어떠한 역할을 해 온 것일까? 당연하게도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에는 언론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여야갈등과 이념갈등은 계층갈등이나 남녀갈등, 세대갈등과 같이 개인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 재현된 현실로부터 인식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Lippmann, 1922/2013). 따라서 언론 보도의 정파적 양극화는 뉴스 수용자의 이념적 정체성에 따라 형성되는 사회적 동질감을 통해 적대적 매체 지각과 신뢰도, 편향적 이용과 평가를 부추기며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이종혁, 2015; 현기득·서미혜, 2019). 더욱이 선거 시기에는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정책과 반응, 그리고 이에 대한 여론 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며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선거에 대한 태도와 투표 방향을 결정한다(Jacobs & Shapiro, 2005). 정당과 후보자 또한 다수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공약과 정책은 물론 정치적 공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겪게 되는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조진만, 2015).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이 심각해진 이유가 언론이 정파적 이해에 매몰되어 과거에 비해 편향적 보도가 증가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언론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정파적 분열의 심화가 뉴스 보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만약 언론의 정파적 편향이 극화되어 왔다면 그것

은 고정된 것일까 아니면 시대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 변화하는 것일까? 언론의 정파성은 어떠한 정치적 조건과 지형에서 극화되는 것일까? 이상의 질문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인 정치적·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언론의 정파성과 병행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언론의 정파성은 점차 깊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조건에 따라 변동하는 것인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뉴스 보도를 통해 나타나는 정파성을 측정하고 그 변화 양상을 추적하여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에 있어 언론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토대로 본 연구는 1997년 15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까지 총 6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언론이 어떻게 후보자를 다뤘는지를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파성의 양상과 변동을 밝혔다. 선거 보도는 언론사의 정파성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통시적 관점에서 보도 태도를 추적, 비교하는데 적합한 분석 대상이다. 특히, 대선은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적 의미와 비중이 매우 큰 선거로 전국적 관심을 받으며 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쏟아내기 때문에 정당은 물론 후보자에 대한 언론사의 관점으로서 나타나는 정파성을 측정하고 비교하기에 적합하다. 각 선거별 정당 구도나 판세 등의 정치 구조가 언론 정파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기에도 도움이 된다. 더욱이 상업화와 디지털화로 특징되는 외부 압력이 매체 환경을 더욱 경쟁적으로 변모시켰고, 전통적인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보도의 방식과 양태 역시 달라져 왔을 뿐만 아니라(Chadwick, 2017; Mattoni & Ceccobelli, 2018), 정치적 양극화를 불러왔다는 지적(Prior, 2007)에 대해 이 주장이 한국의 선거 보도에 적용되는지 진단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정파성으로 측정되는 언론과 정당의 관계 변화를 장기간 추적해 봄으로써 언론매체가 전문적인 가치와 규칙, 절차 등이 유지되는 제도화된 기관으로 작동하고 있는지(Hallin & Mancini, 2004; Singer, 2005)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혹은 좌파와 우파로 양분되어 인식되는 언론매체의 지형이 실재하며 고정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환경과 경제 구조에 따라 변동해 왔는지 살피는 근거를 제공한다.

물론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이념적 편향은 선거는 물론 다양한 정치, 사회적 이슈들과 정책 문제들에 대한 보도량과 논조 혹은 프레임은 정태적으로 비교 분석한 시도를 통해 밝혀져 왔다. 이러한 시도는 사안의 주제 혹은 이슈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언론사의 보도 경향이 어떠한지를 비교함으로써 정파적 편향성이나 이념적 일관성을 검증하는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특정 시점이나 사안에 대한 언론의 정파적 혹은 이념적 편향을 재확인할 뿐 정파성이 정치적 환경이나 구도, 또는 정책 등에 따라 변동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역동성을 보이는지를 추적하고 그 추세를 진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언론의 정파적 편향이 어떻게 발현되고 변

모해 왔는지를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사회갈등의 심화와 갖는 관계를 추론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의 정파적 편향이 어떠한 양상을 보여 왔는지를 종단적으로 파악하여 우리 사회의 여야갈등과 이념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대중 인식에 대해 언론의 책임을 진단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언론사의 이념적 편향과 정파성을 다각적이고 동태적 차원에서 실증 분석할 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 혹은 단기간에 국한된 정태적 분석이 내포한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둘째, 특정 사안이나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언론의 정파적 태도를 통시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일관된 기준으로 이념적 편향을 비교하여 언론 정파성이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였는지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언론 정파성이 편견에 따른 허상인지 아니면 이념적 양극화에 따른 편향이 실재하는지 살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정파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통시적 관점에서 변동 양상을 비교하고자 토픽 모델링에 기초한 자동화 텍스트 분석을 활용함으로써 뉴스 내용분석의 방법적 지평을 확장하였다. 이상의 학술적 기여를 토대로 관련 문헌을 이론과 방법론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2. 관련 문헌의 검토

1) 언론 정파성의 개념과 지형의 양상

언론 정파성을 통시적으로 추적해 그 양상과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론 정파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언론의 정파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정파성의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파성은 “정당에 대한 정서, 인식 및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책이나 정치적 사건은 물론 사회적 이슈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종의 준거집단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송현주, 2015, 177쪽). 정당은 사회적으로 주목되는 사건과 문제들에 대해 입장과 의견을 표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들이 정당을 통해 대립적인 정파적 관점에서 정리되곤 한다. 그런데 흔히 한국 사회에서 정파성은 이념적 편향성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는 거대 정당 간의 대립으로 정파성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정파성 역시 이러한 정치적 편향과 병행하는 듯한 양상을 보여준다. 많은 연구들에서 보수 매체와 진보 매체가 선형적으로 구분되고 있어 이념으로 양분된 언론 지형이 분명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사안의 성격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증적 차원에서 상당히 일관적으로 이념에 따른 언론사의 정파성이 확인되어 온 것이다(김경희·노기영, 2011:

최현주, 2010). 이러한 시각에서 언론의 정파성은 불편부당성(impartiality)과 대적점에서 있는 개념으로 거대양당 간의 갈등 기저에 있는 이념 대립에 있어 편향(bias)과 편견(prejudice)이 작용해 어느 한 편의 시각과 의견, 이해관계에 치우쳐 균형성을 잃은 형태로 나타난다(김영욱, 2011). 결국,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정당 구조에서 언론사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정서, 인식 및 태도를 보이는 행태로 언론의 정파성을 정의할 수 있겠다.

사실, 우리 사회의 언론 정파성은 다양한 사안과 시기에 걸쳐 그 지형과 양상이 꾸준히 연구돼 온 개념이다. 그만큼 언론 정파성은 중요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 대상으로 다뤄져 온 것이다. 먼저, 언론의 정파성을 매체의 이념적 지향이 특정 대상이나 이슈에 대한 보도 방식으로 나타나는 편향으로 바라본 시각이 있다. 김경희와 노기영(2011)은 북한 관련 보도에 있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보수적 관점을 경향신문과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선협적인 이념 지향의 차이가 주제 선정과 기사의 관점, 북한에 대한 묘사 방식 등 다양한 내용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언론매체의 이념 지향이 정치 문제에 대한 보도 태도로 발현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실제로 윤영철, 김경모, 그리고 김지현(2015)은 '경제민주화'라는 정치적 이슈에 주목하여 언론매체 간 보도 관점이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 보도의 외적 다양성과 달리 정파성이 강한 매체일수록 해당 이슈를 단일한 목소리로 다뤄 내적 다양성이 부족한 경향이 나타났음도 밝혀졌다. 결국 언론매체의 이념적 지향이 보도 내용의 주제는 물론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최선규, 유수정, 그리고 양성은(2012)은 언론 정파성이 취재원이 인용되는 양상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비슷한 관점에서 유수정과 이건호(2017)는 무상복지 이슈를 다룰 때 드러나는 논조의 차이가 취재원보다는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나 기자에 의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론의 이념 성향이 보수와 진보로의 양분화가 아닌 중립까지 포함한 삼자 체계로 구분됨을 제시했다.

이상의 언론 정파성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발현되는 양상과 그 지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언론사의 정파성이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여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더욱 극화해 온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론의 보도 행태가 이념적 대립으로 점차 강화되어 왔는지, 아니면 정치적 구도나 경제 구조의 변화와 조응하며 변동해 왔는지에 대한 해답은 언론 정파성의 거시 구조와 그 변화 양상에 대한 통시적 분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의 정파성이 이념적 구분과 꼭 병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한 김수정과 정연구(2018)의 연구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국내 언론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구도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지 진단하고자 19대 대선 시기의 선거 보도를 분석한 결과 양분된 정당 구조에 따른 정파적 양상이 나타났을 뿐 이념적 지향과 조응하는 언론 지형은 아니었음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민주화 이후 엘리트 집단이 분열과 이합집산하며 나타난 분파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언론의 정파성이 굳어졌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했다. 이러한 지적은 한국 언론이 다양한 사회집단과 정치 세력의 목소리를 이념적 지향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된 태도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과 국면에 따라 정파성이 변동하며 노동-자본 혹은 분배-성장 등의 이념 지향을 토대로 한 정책 대결의 담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수정·정연구, 2018; 최현주, 2010). 결국, 보다 다양한 언론사들의 보도 경향을 통시적 차원으로 추적하고 그 양상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변화의 원인과 추세까지 살펴야 언론 정파성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2) 선거 보도를 이용한 언론 정파성 분석

사실 언론 정파성에 대한 분석은 선거 보도에서 나타나는 매체 간 편향이 어떠한지를 포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언론 정파성이 이념적 지향에 고착되기보다 양당 구조라는 정치적 환경에서 이해관계가 맞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태도로 바라보는 시각이 자리한다. 가령, 권혁남(2009)은 15대 대선과 16대 대선에서의 KBS와 MBC, SBS 뉴스를 내용분석하여 방송사의 선거 보도에서 양적 차원의 여당 편향성은 상당 부분 감소했으나 내용 차원의 질적 편파성은 지속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 연구의 의의는 친여당 편향성의 TV 방송사가 정권교체에 따른 태도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원희영과 윤석민(2015)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탄생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대선 보도를 분석하여 종편 뉴스가 당시 여당이었던 보수정당의 후보에게 호의적인 편향성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수록 정파성이 강화되는 양상이었음을 제시했다. 이러한 선거 국면에서의 언론 정파성을 분석한 연구는 방송 뉴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령, 박재영 외(2014)의 경우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의 선거 보도를 기사의 품질과 심층성, 그리고 공공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변화 양상을 1992년 14대 대선부터 2012년 18대 대선까지 통시적으로 추적하여 해당 신문사들의 정파성이 강화되었음을 주장했다. 이 연구는 정파성의 개념을 보도 관점의 내적 다양성 차원에서 바라보며 이념적 지향이 뚜렷한 언론사들의 선거 보도에서 정파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보다 많은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파성 지형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정치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변동 양상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렇다면 선거 보도에서 드러나는 언론의 정파성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기존 연구들은 언론 정파성을 양적 차원과 질적 차원의 편향으로 나누어 전자를 한쪽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치우친 보도량으로 측정하고 정당에 대한 기사의 논조나 태도로서 후자를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해 왔다. 권혁남(2009)은 방송 시간이나 기사 길이는 물론 기사의 유형과 보도 순서 등 양적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언론의 편향과 뉴스의 초점과 기사 내용에서의 왜곡과 수사적 편파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호의적인 분위기나 이미지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질적 차원의 편향으로 구분해 대선 보도에서의 정파성을 분석했다. 원희영과 윤석민(2015) 역시 대선 보도의 편향성을 뉴스의 취재원이나 출연자 등의 보도 시간과 발언 길이로 정량적 지표를 측정하고 뉴스 등장인물의 발언이 사실에 기반했는지와 어느 쪽에 편향되었는지로 평가한 정성적 지표로 측정했다. 이승엽, 양기문, 그리고 이상우(2017)는 제6회 지방선거에 대한 방송사의 뉴스 보도를 분석해 언론 정파성이 물리적 편향성으로 드러나는지를 측정하고자 정당과 후보자가 등장하는 정도를 정량적 방식으로 측정했다. 또한 정성적 차원에서 보도 주제와 논조의 편향성으로 정파성을 측정하고자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적용해 주제 선정과 논조에 매체 간 차이가 존재했으며 지상파 방송 채널에 비교하여 종편의 정치적 편향성이 일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김수정과 정연구(2018)는 뉴스에 정당(후보)이 노출되는 빈도(보도량)가 여론의 관심에 비해 어느 한쪽으로 과대 편중되어 있는지로 양적 편향을 측정했고 보도 내용에서 정당에 대한 유/불리로 평가할 수 있는 주제적 특성의 비중으로 질적 편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선거 시기에 나타난 언론 정파성의 지형을 도출했다.

이상의 논의는 우선 양적 차원의 언론 정파성이 대선 후보에 대한 보도량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신문사의 대선 보도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선거 시기에 보수와 진보 진영의 정당 후보에 대한 보도량이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언론 정파성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정당 구조에서 언론사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경향을 보이는 행태인데, 이는 대선 보도에 있어 양쪽 진영에 대한 기계적 혹은 형식적 공정성으로부터 벗어난 경향으로 드러나게 된다. 즉, 양적 차원의 편향은 선거 보도에서 후보자나 후보자 진영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등장하는 빈도 혹은 비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김수정·정연구, 2018; 하승태, 2008). 물론, 언론의 보도량은 정파성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시간도 존재한다. 가령, 하승태(2012)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인 후보자에 대한 뉴스 보도량이 증가했음을 제시하며,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쪽에 대중이 동조하게 되는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s)가 보도량 추이로 나타남을 주장했다. 이 결과는 대선 후보에 대한 보도량이 정파성 때문이 아닌 선거 관세에 따라 결정되는 지표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

나 대선 시기의 매체 보도량은 여론 지형은 물론 정파적 태도와도 연동하고 있어 양적 편향의 차원에서 보도량 비율이 타당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김수정·정연구, 2018).

물론 양적 차원에서 보도량을 측정하고 그 추이를 파악하는 시도는 언론 정파성의 양상을 정확하게 조망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물리적 균형 이면에서 편파적인 논조 등의 질적 편향이 언론의 정파성에 의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행 연구들은 언론의 정파성을 보도 내용과 논조의 분석을 통해 질적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점은 보도 주제의 분포에 있어 언론의 정당 편향성이 드러난다는 시각이다. 이는 보도 이슈에 대한 언론사의 취사선택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정파적 편향이 개입하며, 그 결과 뉴스 보도에서 드러나는 이슈의 분포가 언론사의 정파적 입장과 태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즉, “어떤 사안(events 및 현상)을 어떤 비중으로 보도할 것인가(뉴스 가치)와 그 사안에 포함된 많은 사실과 사실관계 중 어떤 사실과 사실관계에 초점을 맞추는가”(김영욱, 2011, 114쪽)에 주목하여 언론사의 정파성을 파악한 것이다. 여기에는 언론의 정파성이 이념적으로 조용하거나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는 정당(혹은 후보자)에게 유리(혹은 불리)하도록 특정 이슈나 정책을 선택해 집중보도하는 방식으로 보도 내용이 구성된다는 시각이 자리한다. 실제 권혁남(2009)은 언론의 의제설정 효과에 주목해 한쪽 후보의 이슈나 정책을 다른 후보에 비해 더 현저하게 보도하는 경향으로 내용적 차원의 보도 공정성을 측정했다. 특히 방송 뉴스에 비해 선거나 후보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문 기사가 이슈 선정과 주제 구성 등에서 정파적 편향성이 보다 쉽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특성에 주목했다. 이는 언론의 편향적 보도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이슈를 부각하고 불리한 이슈는 생략하는 방식으로 발현된다는 점(김영욱, 2011)에 기반해 질적 차원의 언론 정파성이 보수와 진보 진영의 후보에 대한 보도를 구성하는 이슈 분포의 차이로 개념화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3) 컴퓨터를 활용한 대선 보도의 통시적 변화 추적

사실 통시적 관점에서 언론의 보도 양태를 분석해 언론 정파성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시도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언론의 정파성은 이념적 지향에 조응하며 고착화된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맥락에 따라 변동해 왔음이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져 왔다(김동률, 2009; 박재영 외, 2014; 손승혜·이귀옥·이수연, 2012; 송은지·이건호, 2014; 이원섭, 2006). 하지만 분석 대상이 사실로 한정되거나(김동률, 2009; 이원섭, 2006; 최진호·한동섭, 2012), 특정 주제의 보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손승혜 외, 2012; 송은지·이건호, 2014), 기사의 수집 역시 전체 기간이 아닌

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박재영 외, 2014), 그리고 분석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고 질적 분석에 의존함으로써(최진호·한동섭(2012), 정치적 맥락과 같은 외부 요인과 상호 작용하며 변동하는 언론 정파성에 대한 해석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대선 보도 기사를 수집하고 객관적 기준을 적용한 방식으로 정파성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접근을 요구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내용분석의 활용이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감정분석으로 언론의 보도 태도를 측정해 정파성 지형을 조망하고 변동 양상을 추적해 도출한 정파성의 지형이 전통적 내용분석의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했기 때문이다(최창식·임영호, 2021a, 2021b). 즉, 다양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대단위 뉴스 자료를 자동화 내용분석으로 분석하여 통시적 관점에서 언론 정파성을 측정하는 방법의 타당성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전통적인 내용분석으로 언론 정파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인간 코더 간의 일관된 분석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돼 온 것이 사실인데,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으로 분석의 재현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컴퓨터를 활용한 자동화 방식으로 보도량에서 드러나는 양적 편향은 물론 이슈 선정으로 드러나는 질적 편향을 측정했다. 특히 질적 편향을 측정하고자 활용한 방법은 토픽 모델링이다. 최근 데이터 과학의 발전과 함께 토픽 모델링과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화 방식의 내용분석이 뉴스 의제나 프레임 분석에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인간 코더의 독해와 판단에 의존해 온 기존의 내용분석은 연역적으로 설정한 유목과 정의에 국한된다는 특성이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 검증된 개념을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간의 대단위 자료에 대한 통시적 분석을 위해 일관된 분석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인간 코더를 이용하여 대단위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높은 신뢰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컴퓨터를 이용한 내용분석의 방법은 데이터에서 귀납적으로 도출한 패턴에 기초해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여 개념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거시적 차원의 특성 포착과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추적하여 기존의 내용 분석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지식 발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데이터에 기반한 주제 추정에 있어서도 연구자의 판단이 개입되고, 측정의 외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지만 신뢰도의 문제로부터는 자유롭다는 이점도 고려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1997년 15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까지 치러진 6차례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드러난 언론의 정파성을 자동화 방법에 기반하여 귀납적,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은 양적 측면에서 바라본 대선 보도의 정파성 정도와 그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이다. 우선 본 연구는 언론사가

대선에 주목하는 비중 대비 한쪽 진영 정당 후보에 편향된 보도 행태를 보이는 정도를 정량적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보도량 편향 지수를 도출하여 정파성을 측정했다. 이를 통해언론의 대선 보도량이 선거 관세에서 유리한 후보에 치우친다는 경향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이념적 정향이 개입한 흔적이 나타나는지를 살폈다. 그리고 양적 차원에서 언론의 정파성이 점차 심화되어 왔는지도 진단했다.

연구문제 2는 질적 차원에서 대선 보도의 정파성은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여왔는가이다. 본 연구는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정당 구조에서 언론 정파성은 한쪽 후보에 대한 이슈 현저성이 편향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이슈 현저성의 편향 양상이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어떠한 차이로 나타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각 대선 시기의 언론 정파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현저성 격차가 나타난 이슈들을 대선별로 살피고, 그 변화 추이를 바탕으로 언론 정파성의 심화 여부를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의 이념적 지향에 따른 정치 편향적 보도가 증가해 왔는지, 그렇다면 정파성은 어떠한 정치적 조건과 지형에서 극화 되는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3. 연구방법

1) 데이터

언론 정파성을 통시적으로 추적하고자 주목한 시기는 1997년에 이뤄진 15대 대선부터이다. 이는 당시 김대중 정부가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요 신문에 대해 세무조사를 단행한 결과 막대한 추징금과 사주들의 유죄 판결 등이 발생했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지가 정부는 물론 한경대(한겨레, 경향신문, 대한매일)로 대표되는 진보지와의 날 선 대립각을 세우게 되며 언론의 정치적 편향이 공고화되기 시작했다는 시각에 기반한다(김수정·정연구, 2018). 특히, 신문의 정파적 편향에 주목한 이유는 방송 매체에 비해 신문은 뚜렷한 이념 성향으로 정치 참여의 매개체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Chaffee & Frank, 1996), 정치적 이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Eveland & Scheufele, 2000). 또한 한국의 언론 구조에서 신문은 방송에 비해 보다 일관된 정파성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김수정·정연구, 2018). 나아가 통시적 접근으로 15대 대선부터 가장 최근의 20대 대선까지 6차례에 걸친 대선 보도를 분석하여 언론 정파성이 고정된 형태로 나타났는지 아니면 지평의 변화가 관찰되는지, 그리고 그 양상이 심화했는지 살피고자 한다. 대선 보도는 언론 정파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간으로 신문사의 이념 지향이 정당 혹은 후보자 편향으로 발현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시행된 대선 보도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정치 구도와 지형에 의해 어떠한 정파성을 보이게 되는지 살피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or.kr)를 이용해 1997년 15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한 선거 관련 기사가 검색되는 전국 종합일간지 9곳에서 뉴스 데이터를 수집했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9곳의 종합일간지¹⁾에서 대선 기사를 수집함으로써 비교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고려함은 물론 선행 연구에 기초해 언론사 간 이념적 성향의 차이를 감안하여 외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했다(〈Table 1〉 참조). 각 대선 시기의 관련 기사를 수집하고자 본 연구는 정치면에서 보수·진보 진영 정당의 후보자가 제목이나 본문에서 언급된 기사로 한정했고(유사도 높은 기사 및 인사, 부고, 동정, 포토 등은 제외), 검색 기간은 각 정당의 후보자가 선출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로 설정했다.²⁾ 그 결과 총 123,134건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Table 1. Data Summary of News Organizations

언론사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
뉴스 건수	12,479	9,037	19,569	15,828	13,674	11,770	15,606	12,388	12,783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언론 정파성을 양적 편향과 질적 편향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우선, 양적 편향을 각 대선 시기에 보수와 진보 진영의 후보가 모두 언급되는 정도에 비해 특정 후보에 대해 집중된 보도량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언론의 질적 편향은 대선 보도에서 선정된 이슈와 그 분포로 측정했다. 이는 양쪽 후보를 모두 다뤄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기사와 달리 어느 한쪽 후보를 다루는 기사에서 이슈 선정의 편향성이 드러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특히, 대선 관련 보도는 외부로부터 언론사의 정치적 균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로 이러한 조건에서 드러나는 편향적 이슈 선정

1) 보수 이념이 보도에서 가장 일관되게 투영돼 온 언론사는 조선일보이지만, 분석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자료가 빅카인즈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기존 문헌(김경희·노기영, 2011; 김수정·정연구, 2018; 이원섭, 2006; 최창식·임영호, 2021a)에서 조선일보와 가장 가까운 이념적, 정파적 태도가 일관되게 확인된 동아일보와 문화일보를 보수 준거 매체로 선정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이 일관되게 확인되어 진보 준거 매체로 택했다(윤영철 외, 2014; 최선규 외, 2012).

2) 각 선거시기별 뉴스 데이터를 수집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5대 대선: 1997년 5월 19일~1997년 12월 18일; 16대 대선: 2002년 4월 27일~2002년 12월 19일; 17대 대선: 2007년 4월 23일~2007년 12월 19일; 18대 대선: 2012년 4월 23일~2012년 12월 19일; 19대 대선: 2016년 9월 11일~2017년 5월 9일; 20대 대선: 2021년 7월 12일~2022년 3월 9일

과 구성은 정파성 측정에 타당한 정량 지표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선에 있어 어떠한 이슈에 주목해 보도하는지로 나타나는 편향성으로 언론사의 정파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15대 대선부터 20대 대선까지의 선거 보도에서 보도량 편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일관된 기준으로 측정함으로써 언론 정파성의 변동 양상을 통시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Table 2>는 대선별 언론사의 보도량을 정리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에 대해서는 수집된 대선 관련 기사에 대한 빈도를 이용하여 보도량 편향 지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 살폈다. 우선, 대선 시기마다 각 신문사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 후보가 모두 언급된 기사의 건수 대비 한쪽 진영의 후보만 언급된 기사의 건수 비율을 계산하여 보수 편향 보도량과 진보 편향 보도량을 각각 측정했다(<Table 2> 참조). 이를 위해 빅카인즈 뉴스 데이터가 제공하는 기사에서 언급된 인물명을 추출한 정보를 이용했다. 그리고 두 비율의 비율, 즉 진보 편향 보도량 대비 보수 편향 보도량을 계산한 후 자연로그 변환으로 데이터를 정규화하여 이상값(outlier)의 영향을 줄이고자 했다. 이렇게 도출된 언론의 보도량 편향 지수는 각 신문사가 해당 대선 시기에 두 후보를 모두 다룸으로써 기계적 중립을 보이는 경향과 비교해 보수 정당 후보에 더 치중된 보도를 하는지(양수) 아니면 진보 정당에 더 치중된 보도를 하는지(음수)를 정량적 차원에서 보여준다.

$$\text{보도량의 편향 지수} = \ln \left(\frac{n_c/n_b}{n_i/n_b} \right)$$

n_c : 보수 후보 c 만 언급된 기사의 건수

n_i : 진보 후보 i 만 언급된 기사의 건수

n_b : 보수와 진보 정당의 후보 모두가 언급된 기사의 건수

Table 2. Election Coverage by News Organizations

이념 성향	언론사	(위) 보수 정당 후보자만 언급된 기사 건수						
		(중간) 진보 정당 후보자만 언급된 기사 건수						
		(아래) 보수와 진보 정당 후보자 모두 언급된 기사 건수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합계
보수	동아일보	630	397	857	719	68	1,035	3,692
		566	589	276	339	921	1,001	3,706
		857	656	423	828	292	1,753	4,809
	문화일보	526	243	771	733	75	371	2,777
		342	330	239	431	875	560	2,719
		571	505	372	761	278	827	3,314

	세계일보	551	302	575	1,257	243	2,511	5,661
		543	458	237	484	1,738	2,201	5,439
		779	557	257	1,079	548	4,794	8,014
	중앙일보	469	269	810	598	411	1,435	3,992
		500	429	197	273	2,711	1,325	5,435
		695	485	514	648	909	2,749	6,000
중도	국민일보	487	275	749	718	227	1,206	3,662
		406	348	214	327	1,870	1,401	4,566
		710	534	364	726	555	2,243	5,132
	한국일보	579	322	949	806	140	823	3,619
		503	453	260	303	1,339	677	3,535
		734	575	413	628	359	1,650	4,359
진보	경향신문	511	318	696	2,228	242	963	4,958
		447	476	244	751	1,475	898	4,291
		645	545	412	1,755	546	1,911	5,814
	서울신문	485	265	671	726	296	1,045	3,488
		402	411	234	250	1,634	1,017	3,948
		580	590	391	686	547	1,833	4,627
	한겨레	347	284	654	1,888	180	740	4,093
		302	504	235	629	1,184	539	3,393
		535	595	311	1,574	470	1,253	4,738
합계	14,702	11,715	12,325	22,145	20,133	38,761	123,134	

연구문제 2는 대선 시기마다 각 신문에 대한 이슈 현저성의 편향 지수를 도출해 살폈다. 이슈 현저성의 편향 지수는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언론 보도에서 도출한 이슈의 상대적 비중으로 산출했다. 토픽 모델링은 대단위의 문서 집합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해당 문서에서 등장하는 빈도에 기초해 주제 구조를 추정하는 방법이다(Blei, 2012). 이를 통해 추정된 주제가 각 문서에 등장할 확률을 산출할 수 있고 나아가 문서 전체에 분포하는 비율도 파악할 수 있다. 이때의 주제는 같은 문서에서 자주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로 추론되는 내용적 특성으로 뉴스 기사의 경우 보도되는 이슈로 볼 수 있다(이신행, 2023). 사실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언론 의제를 파악하거나, 프레임 분석하는데 활용한 선행 연구들(오다슬·이신행, 2023; 이종혁·길우영, 2019; 이준웅·김성희, 2018)은 자동화 내용분석으로 뉴스 보도의 주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이슈가 선정되고 강조되는지 포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즉, 뉴스 보도에서 추정된 주제 구조는 해당 언론사가 이슈를 선택하고 집중한 정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선 보도에서 드러나는 질적 차원의 언론 정파성을 정당 후보자에 대해 현저하게 나타난 이슈 구성의 편향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토픽 모델링으로 도출했다.

토픽 모델링으로 도출한 이슈 현저성의 편향 지수는 대선 시기에 주요한 이슈가 다뤄짐에 있어 신문사가 한쪽 후보에 대한 보도에서 특정 이슈를 부각하거나 축소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로 그 정도가 커질수록 정파성에 따른 이슈 선택과 집중의 편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각 대선마다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자 토픽 모델링을 다음과 같이 활용했다. 우선, 빅카인즈 뉴스 데이터가 제공하는 각 기사에서 추출된 모든 명사 키워드(단순 숫자, 이메일 주소, 시간을 뜻하는 단어 제외) 정보를 이용했다. 명사 키워드는 기사의 주제를 파악하기에 유용한 단어로서 토픽 모델링으로 이슈 현저성을 측정하기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대선 관련 보도에 내재하는 주제 구조를 파악하고 언론사가 어떠한 이슈에 집중하는지 그 경향이 후보자에 따라 편향됐는지를 살피고자 토픽 모델링을 다음 절차에 따라 수행하였다.

확률적 모수 추정 방법인 토픽 모델링은 학습 데이터인 어휘에 대한 처리는 물론 초모수인 주제의 개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Maier et al., 2018). 키워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문사의 대선 보도에서 이슈 성격과 분포를 안정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기사(95% 이상)에서 등장하거나 너무 소수의 기사(0.5% 미만)에서만 사용된 단어는 제외했다. 그리고 각 대선 보도에 대한 문서(기사)-단어 행렬을 도출한 후 최적의 주제 개수(K)를 추정하고자 5개에서 50개까지 5씩 증가하는 후보 값으로 모델을 추정해 어떤 K값의 모델이 실제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결과(likelihood)를 도출하는지로 성능을 평가했다. 이때 사용한 모델은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³⁾이고 잠재적 주제 구조의 분포와 가장 가까운(likely) 분포의 모수군을 찾는 변분 기댓값 최대화(variational expectation-maximization: VEM)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그 결과, 15대부터 20대 대선 보도에서 모두 20개의 주제 개수가 가장 최적의 값으로 나타나 K가 20으로 설정된 모델로 추정된 주제 구조의 모수로 각 기사에서의 주제 출현 확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과정으로 추정된 각 주제가 기사에서 출현할 평균 확률을 이용해 대선 보도 전체에서의 해당 주제의 분포를 산출했다. 주제의 출현 확률은 대선 보도에서 드러난 이슈 분포로 치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각 대선 시기의 뉴스 보도 전체에서 드러난 이슈들이 각 신문사의 기사에서 출현할 확률을 도출했고 이를 이용해 후보자 언급 여부로 구분된 기사 집합에서의 이슈 분포를 파악했다. 그리고 보수 정당 후보자만 언급된 기사에서의 이슈 출현 확률과 진

3) LDA를 이용해 문서에서의 단어 출현 빈도를 결정하는 주제 구조의 모수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주제의 개수(K) 이외에도 모수의 사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초모수인 α 와 η 가 선형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α 와 η 를 기 본값인 0.1로 설정했고 VEM을 이용한 모수군의 반복 추정은 1,000회로 고정했다.

보 정당 후보자만 언급된 기사에서의 이슈 출현 확률을 각각 양쪽 후보 모두가 언급된 기사에서의 이슈 출현 확률과 비교하여 보수 편향 이슈와 진보 편향 이슈의 현저성 정도를 비율로써 산출했다. 그리고 두 비율의 비율을 계산하고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정규성을 갖춘 이슈 현저성 편향 지수로 아래와 같이 도출했다.

$$\text{이슈 현저성의 편향 지수} = \ln\left(\frac{\gamma_{ct}/\gamma_{bt}}{\gamma_{ut}/\gamma_{bt}}\right)$$

γ_{ct} : 보수 후보 c만 언급된 기사에서 t 이슈가 출현할 확률 γ 의 평균

γ_{ut} : 진보 후보 l만 언급된 기사에서 t 이슈가 출현할 확률 γ 의 평균

γ_{bt} : 보수와 진보 후보 모두가 언급된 기사에서 t 이슈가 출현할 확률 γ 의 평균

이슈 현저성의 편향 지수는 각 대선 시기에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슈들이 보수와 진보 정당의 후보 모두가 언급되는 기사에서의 출현 확률과 비교해 보수 후보에 집중된 기사에서 부각되는 이슈일수록 증가(양수)하고 반대로 진보 후보에 집중된 기사에서 부각되는 이슈일수록 감소(음수)한다. 즉, 이슈 현저성의 편향 지수는 신문사가 특정 의제를 보다 강조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수 혹은 진보 후보자에 대한 편파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로써 그 절댓값이 커질수록 해당 이슈의 현저성 편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상의 방법으로 산출한 현저성 편향 지수를 이용해 대선 시기별로 언론사들이 주요 이슈들을 다룸에 있어 보수정당 후보와 진보정당 후보 중 누구와 더 가깝게 보도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수언론으로 분류돼 온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의 이슈 현저성 편향 지수와 대표적 진보언론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편향 지수를 비교해 그 격차로서 언론 정파성을 파악했다. 즉,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이슈 현저성 편향 지수가 언론사들 분포의 양극단에 위치하고 그 격차가 커질수록 해당 이슈가 정파적 관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러한 이슈들의 내용과 분포를 바탕으로 대선 보도에서의 정파성 정도를 측정할 것이다. 나아가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이슈 현저성 편향이 두드러진 이슈들을 대선별로 도출하여 질적 차원의 언론 정파성이 15대 대선부터 20대 대선까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4. 결과

1) 대선 판세에 따른 보도량의 쏠림 현상과 정파적 편향

연구문제 1에 관련해 본 연구는 신문사별 대선 보도량의 편향 지수를 산출해 대선 시기마다의 언론 정파성의 지형을 살피고 시기별 흐름을 추적했다. 이를 위해 <Figure 1>에서와 같이 각 신문사의 보도량 편향 지수를 15대 대선부터 20대 대선까지 측정하여 정태적 양상과 동태적 흐름을 동시에 파악했다. 그 결과 보도량 편향이 언론사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선마다 큰 폭으로 변화해 온 가운데 선거에서 승리했던 보수나 진보 후보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했음을 발견했다. 이는 언론의 보도량 편향 지수가 대선마다 큰 폭으로 변화해 온 가운데 보수나 진보 정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도와 선거 판세에 영향 받아왔음을 보여준다. 즉, 선거 판세가 보수나 진보로 기울어진 선거에서는 언론의 보도량 역시 승리한 진영 후보로 치우쳤다는 의미다.

반면, 15대 대선과 20대 대선과 같이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1% 내외로 매우 접전의 양상이었던 선거에서는 보도량 편향 지수 역시 보수나 진보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15대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보수 진영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390,557표(1.53% 포인트)의 차이로 눌러 당선됐는데 이는 당시로선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였다. 20대 대선에서는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진보 진영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73% 포인트인 247,077표로 따돌리고 당선됐는데 이는 대선 사상 최소 득표율 격차였다. 이러한 접전 상황의 선거에서 보도량 편향 지수는 보수나 진보로 치우치기보다 중립에 집중돼 있어 언론이 양당 진영에 대한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양적 차원에서 언론 정파성은 보수정당 후보를 더 많이 보도하는 신문사와 진보 정당 후보를 더 많이 보도하는 신문사로 양분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는 15대 대선보다 20대 대선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전자의 경우 중앙일보만이 진보 후보를 더 많이 보도한 경향이 나타났고 중립에 가까웠던 세계일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다른 신문사는 모두 보수 후보를 더 많이 보도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문화일보와 국민일보가 진보 정당 후보에 대한 보도량이 더 많았고,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은 양당 후보에 대한 보도량이 비슷했던 반면 세계일보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그리고 한겨레는 보수 후보에 대한 보도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이념 지향에 따른 편향은 아니었을지언정 신문사의 보도량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양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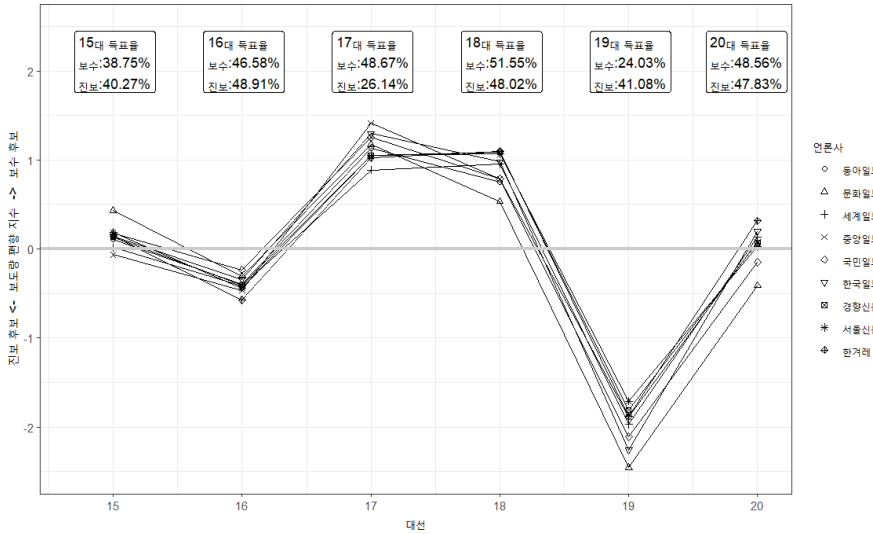


Figure 1. Bias index of presidential election coverage by news organizations

그러나 언론의 보도량 편향은 정파성에 따른 양분화만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히려 16대부터 19대 대선까지는 보수와 진보 중 한쪽으로 모두 치우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15대와 20대 대선과 비교하면 이들 대선은 후보 간 득표 격차가 비교적 많이 벌어졌던 선거로 특히 17대와 19대 대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큰 격차로 각각 보수정당 후보와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됐다. 17대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진보 진영의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22.53%포인트(5,317,708표 차) 차이로 눌렀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진보 진영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17.06%포인트(5,570,951표 차) 앞서 당선된 것이다. 이러한 선거 흐름과 결과를 반영하듯 17대 대선에서는 모든 신문사의 보도량이 보수 후보로 쏠렸는데, 이 가운데 중앙일보의 편향 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수였던 세계일보 역시 보수정당의 이명박 후보를 진보정당의 정동영 후보보다 많이 다룬 편향이 발생한 것이다. 반면, 19대 대선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는데 보도량 편향 지수가 역대 대선 통틀어 가장 진보에 치우친 양상이었던 선거로 모든 언론에서 문재인 후보를 다룬 기사가 홍준표 후보의 기사보다 훨씬 많았으며 이러한 진보 편향은 모든 신문사에서 그 차이가 무색할 만큼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언론 보도량의 쏠림 현상은 진보 진영의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16대 대선과 보수 진영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17대 대선에서도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진보 진영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16대 대선과 19대 대선에서는 모든 신문사에서 진보 후보

에 대한 보도량 편향이 발생한 것이다. 반대로 보수 진영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17대 대선과 18대 대선에서는 모든 신문사에서 보수 후보에 대한 보도량 편향이 관찰됐다. 이 결과는 정치적 구도와 선거 판세가 언론 보도량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며 언론의 정파성은 일방적 분위기의 선거보다는 양당 후보 간의 경합 양상을 보이는 시기에 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념 지향에 따른 양적인 차원의 언론의 정파성은 대선 보도에서 관찰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각 대선 시기에서 보도량 편향의 지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보도량 편향 지수에 있어 이념적 지향이 같은 신문사 간의 유사성이 발견된 것이다. 이 경향은 17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 뚜렷했는데, 17대 대선에서 세계일보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보수 편향성을 보인 신문사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그리고 서울신문이었다. 그런데 18대 대선에서는 반대로 가장 높은 보수 편향성을 보인 신문사가 이들 세 진보언론이었고 가장 낮은 보수 편향성을 보인 신문사는 보수언론인 문화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였다. 19대 대선 역시 같은 흐름이었는데, 진보 후보에 가장 많이 편향된 보도량은 보수언론인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서 나타났고 반면에 가장 낮은 진보 편향성의 언론은 서울신문과 경향신문, 한겨레였다. 이 결과는 양적 차원의 편향성이 이념적으로 조용하는 정당 후보에 대한 보도량 증가보다는 반대 진영 후보에 불리한 이슈의 보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18대와 19대 대선은 언론 정파성이 극단적으로 발현되며 상대측에 대한 날 선 공격과 비판의 갈등적 보도 행태가 증가했던 시기로 추론할 수 있겠다.

반면, 15대와 16대, 그리고 20대 대선에서는 이와 같은 양적 차원에서의 언론 정파성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들 시기에서는 보수나 진보로의 쏠림 현상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신문사의 이념 지향에 따른 보도량 편향이 관찰되지 않은 것이다. 물론 20대 대선에서 가장 높은 보수 편향 보도량은 한겨레에서 가장 높은 진보 편향 보도량은 문화일보에서 나타나 이념적으로 반대쪽 정당 후보에 대한 공격성 보도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같은 시기 한국일보와 세계일보가 보수 편향 지수에서 한겨레의 뒤를 따랐고 보수언론인 동아일보는 진보언론인 서울신문 및 경향신문과 비슷한 편향 지수를 보였다. 이 결과는 보도량으로 측정된 양적 차원의 언론 정파성은 17대 대선과 18대, 19대 대선을 거치며 강화됐지만 20대 대선에서는 상당 부분 완화됐음을 제시한다. 즉, 언론 정파성은 대선에서의 여론 지형과 판세 등의 정치적 조건과 연동돼 나타나는 현상일 뿐 그 추이가 심화하거나 극단화되고 있다는 가설은 기각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2) 선거 판세에 따라 변화하는 이슈 현저성의 정파적 편향

연구문제 2에 관련하여 본 연구는 대선 보도에서 드러나는 언론 정파성을 이슈 현저성 편향으로 측정하고 이슈별로 언론사 분포를 도출해 그 양상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우선, 보수정당 후보에 대한 언론사별 보도에서 평균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등장한 이슈부터 진보정당 후보에게 더 몰린 이슈까지 정렬해 해당 대선에서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 중 누구에게 더 많은 관련 이슈가 보도되었는지 파악했다. 그리고 이슈별로 언론사 보도의 현저성 편향 지수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를 조망하고 이중 대표적 보수언론인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의 지수를 대표 진보언론인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지수와 비교하여 정파성이 두드러진 이슈의 현저성 정도는 물론 몇 개의 이슈에서 그러한 정파성에 따른 현저성 격차가 나타나는지를 포착했다. 이는 대선 뉴스의 내용적 편향성을 측정한 것이 아닌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이슈 현저성 편향 지수가 언론사들의 지수 분포상 양극단에 위치하고 그 격차가 클 때 해당 이슈가 정파적 관점에서 보도되고 있다는 전제로 언론 정파성이 발현된 정도를 추정한 결과다. 마지막으로 15대 대선부터 20대 대선까지 각각 언론 보도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사이에 보도 현저성의 격차가 두드러진 이슈들을 살펴 정파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진단했다.

우선, <Figure 2>는 15대 대선 보도에서 도출한 신문사별 이슈 현저성 편향 지수의 분포로서 20개 전체 이슈 중 6개가 모든 언론사 보도에서 보수 후보에게 치중된 반면 11개 이슈가 진보 후보 보도에서 더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에서 진보정당의 김대중 후보가 승리했던 만큼 관련한 이슈가 더 많이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다. 또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현저성 격차가 나타난 이슈는 총 7개로 '신한국당·민주당 합당'은 보수 후보에 대한 보도에서 강조된 이슈였으며 진보언론보다는 보수언론에서 그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김대중·김종필 단일화,' '새정치국민회의 선거전략,' '후보 연대와 선거구도'는 진보 후보에 대한 보도에서 더 두드러진 이슈였으며 그 경향은 진보언론에서 더 강했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폭로,' 'IMF 구제금융 책임론,' '김대중 총재 선거운동' 역시 모두 진보 후보에 대한 보도에서 더 부각된 이슈였으나 그 정도가 진보언론보다는 보수언론에서 더 두드러졌다. 이와 같이 보수 후보에 가까운 6개의 이슈 중에는 단 하나의 이슈에서만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정파성에 따른 보도의 현저성 격차가 나타났다지만 진보 후보에 관한 11개 이슈 중에서는 6개의 이슈에서 그러한 격차가 발생해 진보 후보 보도에서 언론 정파성이 더 발현된 것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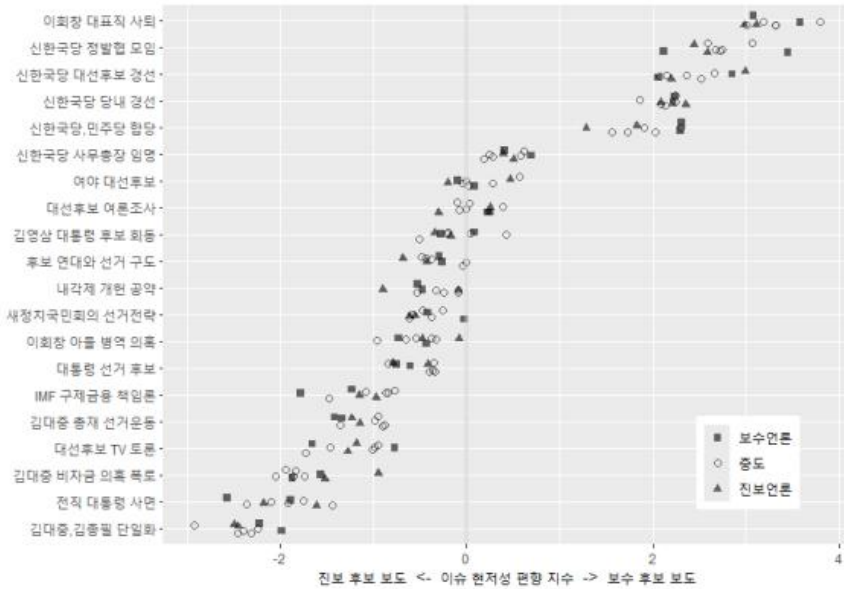


Figure 2. Bias index distribution of issue salience from news coverage of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Figure 3〉은 16대 대선에서의 주요 이슈를 현저성 편향 지수를 언론사 간 평균값에 따라 정리한 결과다. 총 20개 이슈 가운데 6개가 모든 언론사의 보도에서 보수 후보에 더 치중된 이슈였고 7개는 진보 후보에 더 연관된 이슈였다. 박빙의 선거였으나 15대 대선과 같이 진보 후보가 승리한 만큼 이슈 주도에 있어서도 진보 후보가 더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이슈 현저성 격차가 발생한 이슈는 6개로 이 중 “한나라당 의원 검찰 수사”만 보수 후보에 대한 보도에서 더 부각된 이슈였고 그 정도는 보수언론보다는 진보언론에서 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민주당과 정몽준 단일화,” “노무현 후보 TV 토론,” “여야 후보의 정책과 전략”은 진보 후보에 대한 보도에서 더 자주 등장한 이슈들이었으며 그 경향은 보수언론이 진보언론보다 더 높았다. 결국, 보수 후보에 관련한 6개 이슈 중에서는 하나의 이슈 보도에서만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현저성 편향이 나타난데 비해 진보 후보의 7개 이슈 중에선 3개의 이슈가 정파성에 따른 보도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언론 정파성이 관찰된 나머지 2개 이슈인 “3자 대결 구도”와 “경제 정책 공약”은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사이에 각 이슈를 보수 후보 혹은 진보 후보의 의제로 다루고자 하는 경향이 양분됐다는 것이다. 전자의 이슈를 보면 보수언론은 진보 후보 보도에서 더 부각시킨 반면 진보언론은 보수 후보를 다룰 때 더 많이 보도했다. 후자의 경우 진보언론은 진보 후보 보도에서 더 부각한 이슈였지만 보수언론인 문화일

보는 보수 후보 관련 의제로 다루었다. 이처럼 16대 대선에서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후보에 대한 의제 설정에 있어서 정파성이 작용한 양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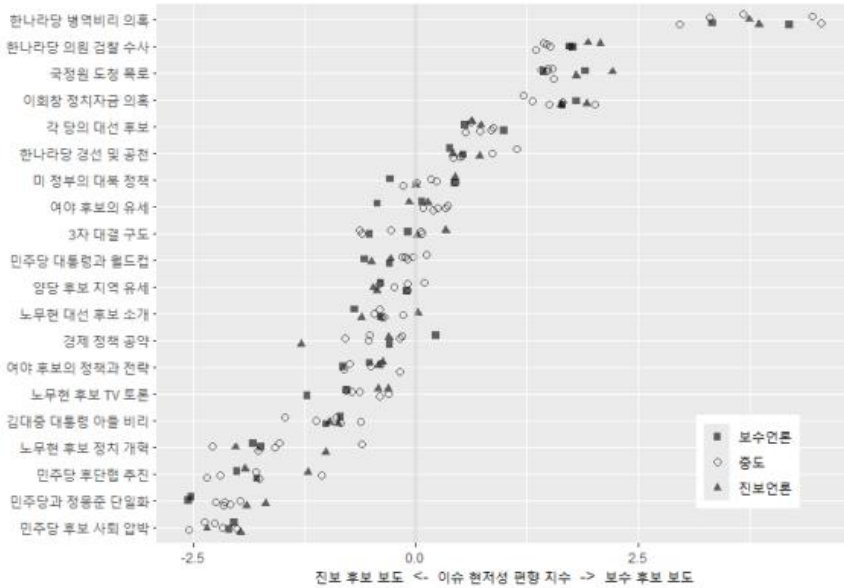


Figure 3. Bias index distribution of issue salience from news coverage of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17대 대선에서는 20개 이슈 중 총 12개가 모든 언론 보도에서 진보 후보보다는 보수 후보를 다룰 때 더 많이 등장한 이슈였던 반면 진보 후보는 5개 이슈에서만 더 많은 조명을 받았다 (<Figure 4> 참조). 보수정당의 이명박 후보가 진보정당의 정동영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눌러 당선된 대선이었던 만큼 언론 의제 역시 그와 같은 관세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15대와 16대 대선과 비교해 언론 정파성이 더 강해진 양상도 관찰됐는데 20개 이슈 중 9개 이슈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사이의 현저성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이 중, “한나라당 후보 검증,” “이명박 의혹 국정원 보고서,” “한나라당 경선 결과”는 모든 언론에서 보수 후보에 더 가까운 이슈였으며 진보언론보다는 보수언론의 보도에서 그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반면 “이명박 도곡동 재산 의혹,” “이회창 대선 출마,” “대선후보 선거 공약” 역시 보수 후보에 대한 보도에서 일관되게 부각된 이슈였지만 보수언론보다는 진보언론에서 그 정도가 더 강했다. “대선 후보 지지율”과 “통합민주당 선대위”는 모든 언론에서 보수 후보보다는 진보 후보에 더 연관시킨 이슈였으나 전자의 이슈가 진보언론보다 보수언론의 보도에서 그 경향이 더 두드러진데 비해 후자의 이슈는 진보언론이 더욱 적

극 보도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후보 지지율” 이슈는 보수언론에서는 보수 후보에 대한 보도에서 더 두드러진 반면 진보언론인 경향신문에서만큼은 진보 후보 보도에서 더 자주 다뤄진 이슈였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이러한 언론 정파성이 나타난 이슈들 중 “한나라당 후보 검증,” “이명박 도곡동 재산 의혹,” “이명박 의혹 국정원 보고서” 등의 보수 후보에 더 가까웠던 이슈들은 현저성 편향 지수가 언론사 간에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는 것이다. 즉, 이명박 후보의 대세론을 언론 보도 역시 반영하고 있었으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정파성에 따른 보도 행태의 분화가 심화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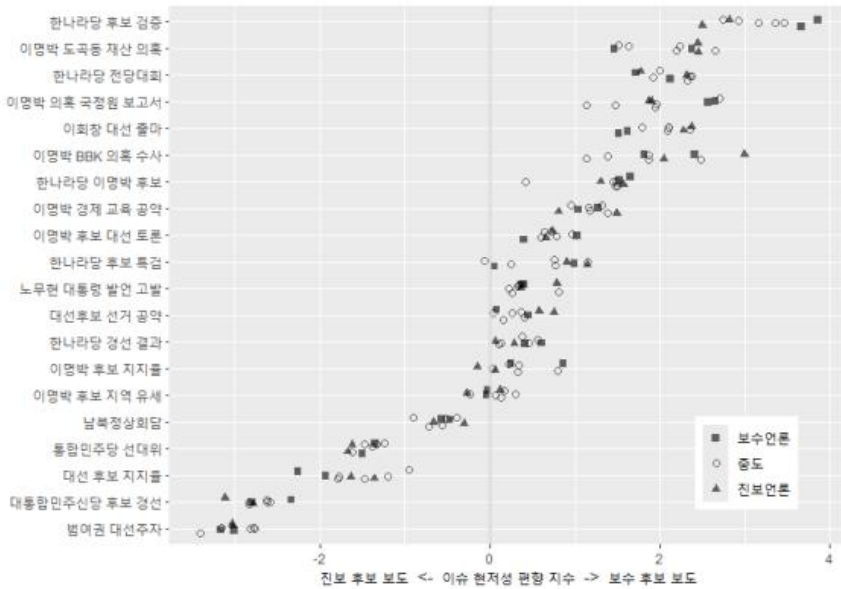


Figure 4. Bias index distribution of issue salience from news coverage of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18대 대선은 앞선 세 차례의 대선에 비해 언론 보도에서 정파성에 따른 이슈 현저성의 편향이 더 두드러진 선거였다. <Figure 5>에서 볼 수 있듯, 20개 이슈 중 7개 이슈가 모든 언론에서 진보 후보보다는 보수 후보에 대한 보도에서 더 많이 등장했으며 5개 이슈는 진보 후보 보도에서 더 많이 다뤄졌다. 무엇보다 보수 후보 대한 보도의 현저성 지수가 가장 컸던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박근혜 후보 과거사 사과,”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이슈에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간의 양분화가 뚜렷했는데, 이 중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이슈는 언론사 간에 가장 넓은 분포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격차 역시 매우 크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

났다. 이처럼 언론 정파성에 따른 이슈 현저성 편향이 나타난 이슈들은 총 10개로 지난 대선들에 비해 그 수가 증가했으며 이 중 5개가 모든 언론사에서 보수 후보에 더 가깝게 연관된 이슈로 다뤄졌으며 3개는 진보 후보에게 그리고 나머지 2개 이슈는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에 각각 관련한 의제로 언론사들의 보도가 양분되었다. 17대 대선에 비해 선거가 각축전의 양상으로 벌어졌고 그 결과 보수정당의 박근혜 후보가 신승을 거둔 만큼 지난 15대와 16대 대선과 같이 언론 의제 역시 비슷한 형태로 분배된 것이다. 또한 보수 후보에게 집중된 5개 이슈 중 “박근혜 후보 과거사 사과,”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박근혜 발언 논란,” “대통령 측근 검찰 수사” 이슈는 진보 언론이 보수언론보다 더 많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던 반면 “새누리당 후보 경선”은 보수언론에서 상대적으로 더 적극 보도해 언론의 정파성에 따른 정당 후보에 대한 보도 태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경향은 진보 후보에 더 가까운 이슈였던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 “안철수 원장 대선 출마” 역시 보수언론보다 진보언론에서 더 자주 등장했다는 점으로도 드러났다. 그러나 보수 혹은 진보 후보에 대한 유불리가 명확하지 않았던 “대선 후보 지지”와 “여성 정치인” 이슈의 경우 진보언론은 보수 후보의 이슈로 다뤘던 반면 보수언론은 진보 후보 혹은 중립적 이슈로 다뤘다. 주목할 점은 보수 후보의 이슈나 진보 후보의 이슈 8개 중 7개 이슈에서 진보언론이 보수언론에 비해 이슈 현저성의 편향 지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언론 정파성에 따른 이슈 현저성의 격차가 발생한 데에는 보수언론보다 진보언론이 해당 의제를 더욱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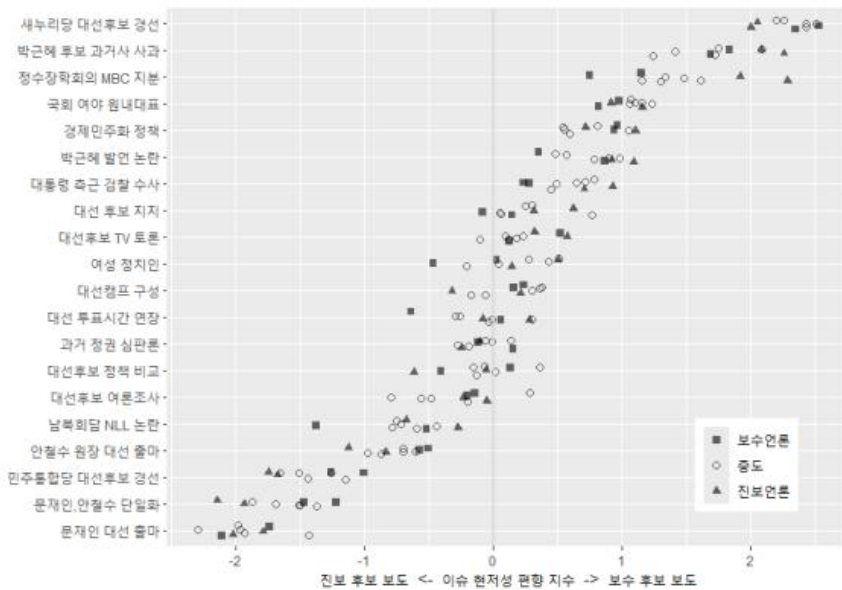


Figure 5. Bias index distribution of issue salience from news coverage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중 조명하는 경향이 강했음을 의미한다.

(Figure 6)은 19대 대선 보도에서 도출한 이슈별 현저성의 편향 지수를 보수언론과 진보 언론 그리고 그 외 중도 언론으로 구별해 정리한 결과로 18대 대선에 비해 더욱 심화된 언론 정파성의 양상을 보여준다. 19대 대선은 17대 대선과 같이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 간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던 선거로 진보정당의 문재인 후보가 보수정당의 홍준표 후보를 약 17% 포인트의 격차로 압도하며 당선됐다. 언론 의제 역시 이를 반영하듯 5개 이슈가 모든 언론에서 진보 후보 보다는 보수 후보에 대한 보도에서 더 많이 등장했던 반면 진보 후보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이슈는 12개에 달했다. 또한 보수 후보 관련 의제 중 “홍준표 후보의 지사 사퇴”와 “대선 토론회” 이슈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현저성 격차가 발생했는데 전자의 이슈는 보수언론에서 후자의 이슈는 진보언론에서 더 주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7대 대선과 같이 대세론을 등에 업은 진보 정당의 문재인 후보에 대해 언론은 더 많은 관련 이슈를 보도했으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보도 행태는 상반된 양상으로 현저성 지수가 양분된 이슈들이 진보 후보의 12개 이슈 중 10개에 달했다. 이 중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한반도 사드 배치”와 같이 진보정당의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했던 이슈는 물론 “대선후보 여론조사”와 “경제, 일자리 공약” 이슈는 보수언론이 진보언론보다 더 적극 보도했다. 반면 “문재인 인재 영입,” “반기문 대선 불출마,” “더불어민주당 경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같은 문재인 후보를 부각하는 이슈와 “대통령제 개헌 논의”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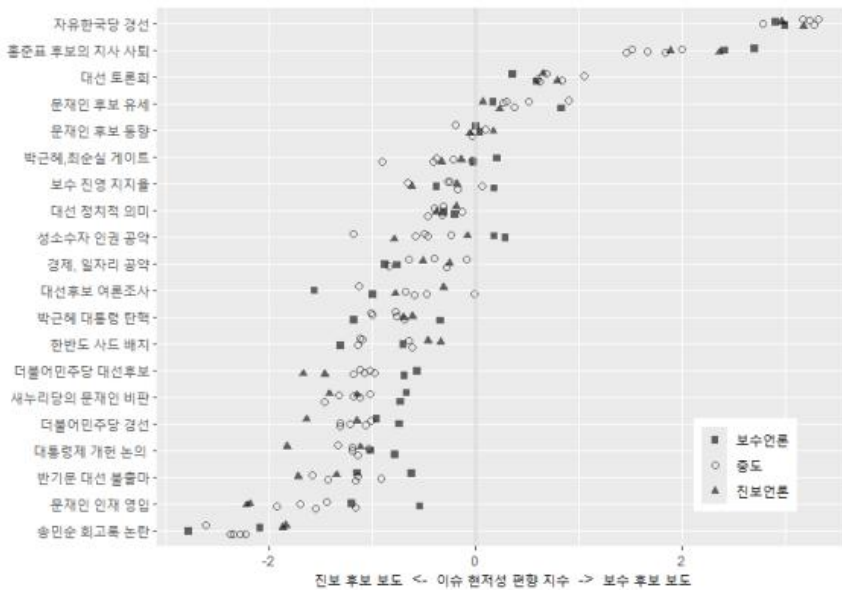


Figure 6. Bias index distribution of issue salience from news coverage of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새누리당의 문재인 비판” 등의 이슈들에는 진보언론이 보수언론보다 더 많이 주목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성소수자 인권 공약”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슈의 경우 보수언론은 보수 후보의 의제로 진보언론은 진보 후보의 의제로 다뤄 정파성에 따른 보도 태도의 분화 양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19대 대선 보도는 언론 정파성이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 이슈 현저성의 편향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20대 대선 보도는 이슈 현저성의 편향 지수에 따른 언론 정파성이 19대 대선에 비하면 상당 부분 감소해 지수의 언론사별 분포도만 봤을 때는 15대 혹은 16대 대선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한 양상이었다. 물론 <Figure 7>에서 나타나듯, 20개 이슈 중 6개 이슈는 모든 언론사에서 보수 후보에 더 가깝게 다뤄진 반면 7개 이슈가 진보 후보에 대한 보도에서 더 자주 등장했던 만큼 20대 대선은 박빙의 선거였다. 또한 20개 이슈 가운데 10개 이슈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사이에 현저성 편향 지수의 격차가 나타났다. 이 중 보수 후보 보도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이슈인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진보언론이 보수언론보다 더 적극 보도했고 진보 후보의 가장 큰 이슈였던 “이재명 대장동 의혹 수사”와 “이재명 지사 국감 출석”은 보수언론이 진보언론보다 더 자주 보도했다. 또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현저성 편향 격차가 가장 컸던 “김건희 의혹 사과”는 정파성에 따른 보도 양태가 극명하게 갈린 이슈로 보수언론은 진보 후보의 이슈로 진보언론은 보수 후보의 이슈로 다뤘으며 “안철수 후보 단일화” 이슈는 보수 후보의 의제였지만 진보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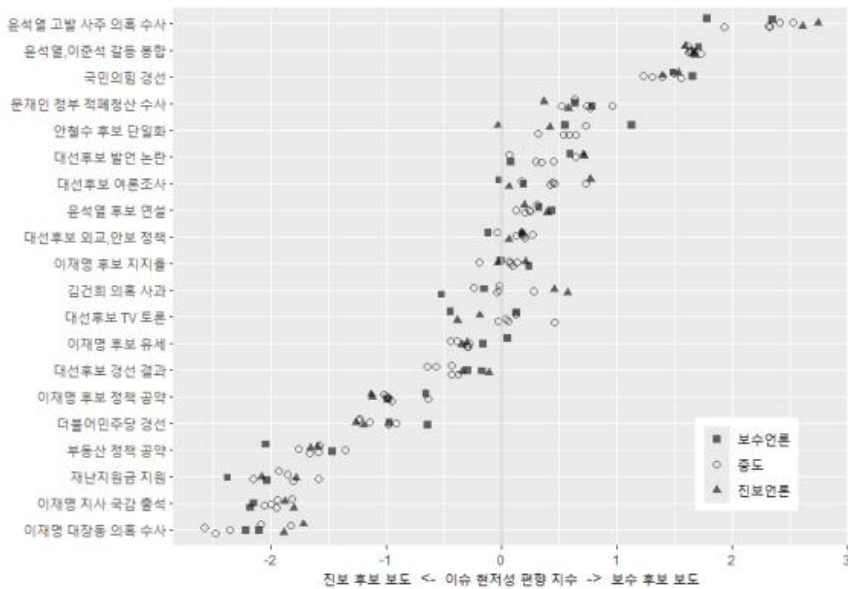


Figure 7. Bias index distribution of issue salience from news coverage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론인 한겨레에서는 오히려 진보 후보에 대한 보도에서 더 많이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대선 보도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양분화는 18대나 19대 대선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는데, 정파성에 따른 언론 의제의 격차가 나타난 이슈들이 각 후보에 대한 보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의제로 다뤄진 경우가 줄어들었음은 물론 현저성 편향 지수의 격차 역시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 대선에서 언론이 주요하게 다룬 이슈들이 보수정당의 후보와 진보정당의 후보에게 각각 가깝게 다뤄진 정도와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 현저성 차이가 나타난 이슈들을 통해 언론 정파성이 발현된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슈 현저성 편향의 양분화로 나타난 언론 정파성은 15대 대선부터 20대 대선까지 거치며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여왔을까? <Figure 8>은 대선별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이슈 현저성 편향 지수에서 도출한 격차의 분포를 정리한 결과로 지수 격차 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15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0대 대선에서 16대 대선 수준으로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 격차의 절댓값이 0.5 이상으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사이에 이슈 주목도가 현저하게 달랐던 이슈의 양도 15대 대선에는 1개, 16대에는 3개 이슈에서 17대에는 7개, 18대에 5개, 그리고 19대에 10개 이슈로 크게 증가하다 20대에 다시 3개 이슈로 감소했다. 이러한 이슈 현저성의 편향으로 측정된 언론 정파성은 17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 극명하게 드러난 반면 15대, 16대, 그리고 20대 대선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된 양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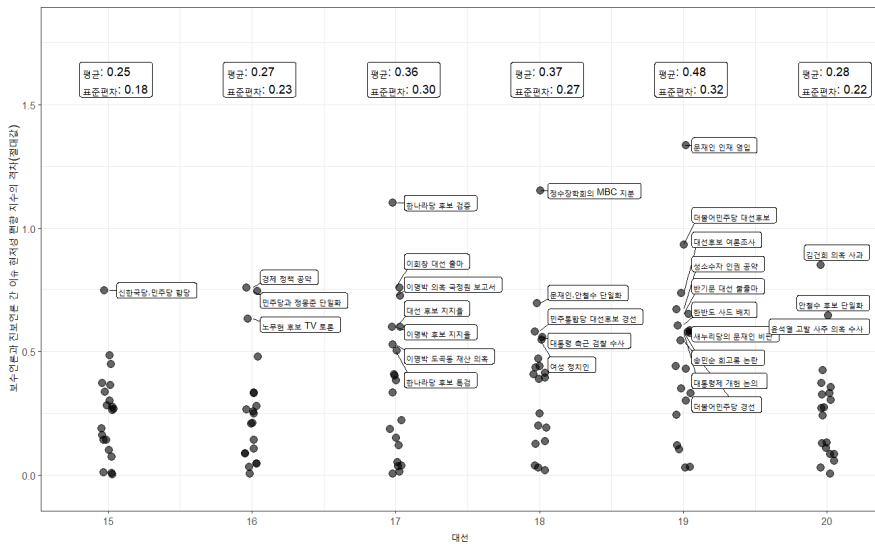


Figure 8. Trend in the gap (absolute value) of issue salience bias index between conservative and liberal media

17대와 19대 대선은 다른 대선들과 달리 선거 판세가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언론사들 역시 우세 후보에게 집중되는 보도 경향을 보였는데,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주목하는 이슈들의 차이가 발생한 분열적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17대에 비해 19대 대선에서 이러한 언론 정파성은 더욱 극화된 형태를 보였다. 반면 20대 대선은 역대 최소 득표율 격차로 대통령이 결정된 선거로 언론 보도에서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에 대한 이슈 분포가 고르게 이루어진 가운데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현저성 격차가 크게 벌어진 이슈들도 줄어들었다. 18대 대선에서도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 간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는데 이때와 비교해도 20대 대선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 이슈 현저성 편향 지수 격차의 평균과 표준편차 모두 낮아져 16대 대선의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정파성에 따라 이슈의 선결과 보도량이 결정되는 편향성은 고정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심화해 온 현상이 아닐뿐더러 선거 판세와 맞물려 그 양상이 변모해 왔음을 보여준다.

5. 논의

본 연구는 언론 정파성이 고정된 이념 지향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정치적 갈등 구조 속에서 점차 심화해 왔는지를 진단하고자 1997년 15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까지의 선거 보도를 통시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언론이 정치적 갈등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정파성을 보여왔는지 규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언론의 정파성은 대선마다의 정치적 조건과 선거 판세에 따라 보수언론 혹은 진보언론이 주도하는 이슈 보도로 인해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17대와 19대 대선에서는 정파성에 따른 이슈 현저성 편향 지수의 격차가 확연히 강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20대 대선에 들어서는 이러한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언론 정파성의 양적 차원에서 측정된 보도량의 편향은 대선 판세나 구도에 조용하며 보수나 진보 혹은 중립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남을 발견했다. 보도량으로 살핀 양적 차원의 언론 정파성은 이념 편향이 제한적으로만 반영되었으며 선거 항배에 따른 대중의 관심과 후보 지지도 등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밝혀낸 것이다. 그리고 양적 차원에서 언론 정파성은 지속적으로 격화돼 온 것이 아니라 대선마다의 국면과 형세에 따라 변동했음도 드러났다. 흥미로운 점은 보도량 편향으로 나타난 언론 정파성은 18대와 19대 대선에서 심화했는데 이때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은 이념적으로 조용하는 정당의 후보에 대한 보도 증가가 아닌 선거의 우세를

점한 후보를 더 많이 다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선거가 접전 양상이었던 15대와 20대 대선을 제외하면 모든 선거에서 언론들은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를 더 많이 보도하는 양상을 보였고 그 정도 역시 서로 비슷했다. 즉, 언론들이 선거 보도에서 여론의 관심을 받는 후보를 더 조명하게 되는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때 언론의 정파성이 부분적으로나마 관찰되었는데 진보언론이 보수 후보를 더 많이 다루고 보수언론이 진보 후보를 더 많이 다뤘다는 점을 볼 때 보도량 편향은 이념적으로 반대의 정당 후보에 대한 견제 내지 비판의 성격으로 나타났으리란 추론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질적 차원에서도 언론 정파성을 분석하고 그 변화 양상을 살폈다. 이를 위해 대선 보도에서 드러나는 언론 정파성을 이슈 현저성 편향으로 측정하고, 각 대선 시기별로 각 언론사의 이슈 현저성 편향 지수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대선마다 언론사의 정파성에 따라 주목하는 이슈가 달랐으며, 특히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에 주목하는 이슈들에 명확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언론의 정파성에 의해 후보자 관련 의제에 대한 보도 경향에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에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격차가 어떠한 조건에서 더 크게 벌어지는지를 대선마다의 정치적 조건을 고려하여 변화 양상을 탐색했다. 그 결과, 질적 차원에서의 언론 정파성 역시 단순히 고정되거나 일관되게 심화해 온 것이 아니라 선거 판세와 정치적 조건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해 왔음을 드러냈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 이슈 현저성 편향의 간극은 17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 더 벌어졌는데 이는 보도량으로 측정된 양적 차원의 언론 정파성 추이와 일치하는 결과로 질적 차원의 정파성 지형 역시 심화해 언론의 대선 의제가 양분된 양상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특히, 17대와 19대 대선은 각각 보수정당의 이명박 후보와 진보정당의 문재인 후보가 큰 표차이로 당선된 선거로서 해당 후보들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에 걸맞게 언론 의제 역시 반영하고 있었다. 17대 대선에서 보수언론은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의제를 부각하는 데 주력한 반면, 진보언론은 부정적 이슈를 조명하며 편향 지수의 간극을 넓혔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안정과 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 속에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개혁 약속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며 진보언론은 관련 의제를 적극 보도했다. 반면 보수언론은 의제 주도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며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의제 현저성 격차가 벌어져 정파성에 따른 보도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언론 정파성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해 온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오히려 언론 정파성은 특정 시기의 정치적 조건 하에서 발현되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적절함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보도량 편향의 양적 차원과 이슈 현저성 편향의 질적 차원으로 살펴본 언론의 정파성은 지속적으로 더 뚜렷해지거나 고착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

기 때문이다. 물론 17대 대선부터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이념 지향이 보도량 편향의 양극화로 발현되긴 했으나 20대 대선에 들어 그 간극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이는 서두에서 밝혔듯 20대 대선을 거치며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극심한 반목과 대결이 극심해졌다고 본 여론조사와는 대비되는 결과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의 이슈 현저성 편향 격차로 살핀 질적 차원의 언론 정파성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20대 대선은 18대 대선과 같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 선거였던 만큼 후보 간에 양분된 의제 분포가 나타났다. 그러나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에서 나타난 보도 경향에 있어 20대 대선에서는 18대 대선에 비해 정파성에 따른 언론 의제의 양극화가 눈에 띄게 줄어든 양상을 보였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보도량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 이슈의 수도 줄었을뿐더러 편향 격차의 정도 역시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언론 정파성이 완화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20대 대선은 역대 최소 득표율 격차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선거로써 언론사들 역시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을 균형감 있게 다루며 이슈 현저성 격차가 좁아지는 결과를 낳았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 역시 언론 정파성은 선거의 경쟁 구도와 같은 정치적 조건들이 상호 작용하며 나타나는 현상이자 언론 외부의 환경 요인에 그 발현 정도가 좌우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결국, 언론 정파성은 정치 체계와 상호 작용하며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념 성향에 따른 지속적인 정치적 편향 역시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왔다는 주장은 실제와 거리가 있다는 의미다.

미디어 체계(media system) 이론에 따르면 언론은 정치 구조와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언론과 정치는 서로 병행하는(parallel) 체계이다(Hallin & Mancini, 2004). 다시 말해, 언론 체계는 정치 체계와 짝을 이뤄 고유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서로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형성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론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 기능도 정치적 맥락과 조응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결국 언론의 정파성 문제가 단순히 미디어 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물론 언론 역시 정파성에 따른 보도 방식을 자정하고 선거 의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게 다루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언론이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분열된 방식으로 의제를 구성하여 정파적 보도 태도를 강화할수록 사회 구성원들 간의 반목과 비방이 늘어나 여론 역시 분열과 양극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최영재, 2011). 특히, 선거 국면에서 언론의 정파성은 정당과 유권자를 연결하는 주요 매개체로 작용하며 편향적 정보 흐름을 부추길 수 있어 이러한 갈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거 국면에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주요 의제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적으로 보도한 것이 확인된 만큼 언론 내부적으로 보다 엄격한 자율

규제와 윤리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보 제공자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의 정파성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종단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선거 보도의 편향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선거 관세는 물론 정치적 맥락에 따라 동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밝혔다. 즉, 언론의 정파성은 이념적 편향의 결과라기보다 특정 시기의 정치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에 동태적 관점을 추가함으로써, 언론 정파성의 다차원성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가령, 기존 연구들은 언론의 이념 다양성을 외적 다양성과 내적 다양성으로 구별해 분석했는데 그 결과 이념 지향의 외적 다양성에 비해 내적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형편임을 보여주었다(윤영철·김경모·김지현, 2015; 최현주, 2010). 여기에 더해 본 연구의 결과는 언론의 이념 다양성은 사안의 성격은 물론 해당 시기의 선거 관세나 정치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정파성 발현의 정도와 연동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언론이 사회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이를 반영하는 체계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연구는 언론의 정파성을 양적 및 질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언론 보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적 기반을 마련했다. 즉, 언론사의 정파적 지향성이 보도 내용의 선택과 강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하에 대선 주도 이슈에서 나타난 보도의 현저성 격차를 바탕으로 언론 정파성을 측정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대선 보도에서 언론은 이념적으로 조용하는 후보에게 유리한 의제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를 적극 보도하는 방식으로 정파성을 발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이슈 현저성 편향이 정파성의 중요한 차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언론이 정치적 대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나아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내용분석을 위해 토픽 모델링을 활용함으로써 대규모 뉴스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함도 입증했다. 결국 언론 보도의 정파적 편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적 접근을 제시하여 향후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상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분석 대상이 된 언론사가 종합일간지 9곳으로 한정되었고 가장 일관적인 보수 이념 지향을 보여 온 조선일보가 제외됐다는 점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 뉴스가 대선 보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매체 간 차이가 정파성으로 발현될 가능성에 대한 분석 역시 요구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매체를 포함하여 정치적 편향의 지형을 살필 필요성이 있겠다. 나아가, 질적 차원의 언론 정파성을 측정하고자 사용한 이슈 현저성의 편향 지수가 내용분석으로 도출한 매체

편향성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현저성 편향 지수가 언론사 간 차이보다 선거 이슈 간에 더 크게 나타난 경우가 많았고 지수 분포 역시 언론사 간 유사성이 관찰되어 대선 보도의 편향성을 측정하는데 유효한 지표로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언론 정파성이 심화한 대선에서 그 원인을 선거 판세와 정치적 구도 등의 거시적 요인으로 추론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언론 정파성이 정치적 지형을 반영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시계열적 상관관계로 검증하고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으로 여론과 보도량 사이의 선행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나아가 대선 보도에서 후보자에 대한 편향과 정당에 대한 편향이 조응하는지 그리고 이념적 지향에 따른 정파성을 매체 간 차이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닌 이슈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른 차이 등 편향이 발현되는 범위를 다층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슈 현저성을 통해 언론의 정파성을 측정하였으나, 각 의제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프레임 분석을 활용하여 현저성 격차가 두드러진 이슈들을 언론이 다루는 논조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언론 정파성의 양상을 보다 정밀하고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언론 정파성을 양적 편향과 질적 편향으로 구분해 양적인 차원에서 보도량 편향이라는 지표를 질적인 차원에서는 의제 현저성 편향이라는 지표를 측정했다. 그러나 기사의 길이나 배치와 순서 등의 형식적 요인 등에서 물리적 차원에서의 언론 정파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슈 선정이라는 의제설정 이외에도 기사의 논조와 프레임은 물론 정보 출처, 취재원 구성 등에서 나타나는 정성적 차원의 정치적 편향 역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가 대선 보도의 통시적 분석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대단위 자료를 일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픽 모델링을 적용했으나 마찬가지로 보다 다양한 측면의 정치적 편향을 컴퓨터이셔널 도구로 측정하는 방법의 적용과 확장을 후속 연구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보도량 편향 및 이슈 현저성 편향 지수를 통해 언론사의 정파성을 분석하였으나 이 지수들이 보도 내용의 성격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즉, 특정 대선 후보나 이슈에 대한 보도량은 측정했으나, 그 보도가 긍정적인지나 부정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보도의 양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정파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보도의 질적 측면이 배제됨으로 인해 결과의 타당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도량과 이슈 현저성뿐만 아니라 감정분석을 활용하여 보도 내용의 긍정적, 부정적 논조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이고 정확한 언론의 정파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s

-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 Chadwick, A. (2017). *The hybrid media system: Politics and pow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affee, S., & Frank, S. (1996). How Americans get political information: Print versus broadcast new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46(1), 48-58.
- Cho, J.-M. (2015). The media in election reporting and the voter's evaluation for its fairness in Korea. *Journal of Contemporary Politics*, 8(2), 47-70. [조진만 (2015).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성 평가. <현대정치연구>, 8권 2호, 47-70.]
- Choi, C.-S., & Lim, Y.-H. (2021a). Sentiment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on partisanship in the presidential coverag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5(1), 35-70. [최창식·임영호 (2021a). 대통령 관련 보도의 감성 분석과 정파성의 지형: 신문별 감성지수의 차이, 일관성, 대통령 지지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5권 1호, 35-70.]
- Choi, C.-S., & Lim, Y.-H. (2021b). 'Honeymoon' hypothesis revisited: A sentiment analysis of the press coverage of Korean president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5(6), 111-147. [최창식·임영호 (2021b). 대통령-언론 간의 '밀월관계' 가설 검토: 역대 대통령 관련 보도에 대한 감성 분석. <한국방송학보>, 35권 6호, 111-147.]
- Choi, H.-J. (2010). A study on the diversity of Korean newspapers : Analyzing the tendencies of covering three major issu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4(3), 399-425. [최현주 (2010). 한국 신문 보도의 이념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 6개 종합일간지의 3개 주요 이슈에 대한 보도 성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3호, 399-425.]
- Choi, J.-H., & Han, D.-S. (2012). The partisanship of media and the media intervention in political-power creation in Korea: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major newspapers' editorial articles during the 13-17th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2(2), 534-571. [최진호·한동섭 (2012). 언론의 정파성과 권력 개입: 1987년 이후 13~17대 대선캠페인 기간의 주요 일간지 사설 분석. <언론과학연구>, 12권 2호, 534-571.]
- Choi, S.-K., Yoo, S.-J., & Yang, S.-E. (2012). Competition in the news market and media bias: Measuring the bias in the quotation of news sourc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Policy Review*, 19(2), 69-92. [최선규·유수정·양성은 (2012). 뉴스 시장의 경쟁과 미디어 편향성: 취재원 인용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19권 2호, 69-92.]

- Choi, Y.-J. (2011). President communication and media coverage of president: Interview and content analysis of sixty-year presidential coverage (1948-2008).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1(3), 349-380. [최영재 (2011). 대통령 커뮤니케이션과 대통령 보도: 1948~2008년 대통령과 언론 관계 분석. <언론과학연구>, 11권 3호, 349-380.]
- Eveland, W., & Scheufele, D. (2000). Connecting news media use with gaps in knowledge and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7, 215-237.
- Ha, S.-T. (2008). Political polling and news coverage of presidential hopefuls: Analysis of sound-bites and photograph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5), 346-366. [하승태 (2008). 지지율 조사 보도에 따른 유력 대선 후보별 뉴스 보도의 분석: 후보 인용(sound-bite)과 보도 사진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2권 5호, 346-366.]
- Ha, S.-T. (2012). Media polling and news coverage of political candidates-USA Today's coverage of U.S. presidential primaries. *Locality & Communication*, 16(2), 115-140. [하승태 (2012). 선거여론조사와 후보별 보도량 분석-USA Today의 미대선 경선 보도를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6권 2호, 115-140.]
- Hallin, D. C., & Mancini, P. (2004). *Comparing media systems: Three models of media an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un, K.-D., & Suh, M.-H. (2019). Comparing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audiences in their partisan perception, trust and use of hostile and friendly news medi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3(2), 46-76. [현기득-서미혜 (2019). 한국 정파언론 환경의 특수성은 보수와 진보 수용자의 매체 태도와 이용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가? 적대적 및 우호적 매체에 대한 정파성 지각이 매체 신뢰와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3권 2호, 46-76.]
- Jacobs, L. R., & Shapiro, R. Y. (2005). Polling politics, media, and election campaigns: Introduction.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69(5), 635-641.
- Kim, D.-R. (2009). Powe shift and media empowerment.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5, 296-339. [김동률 (2009). 언론의 정치권력화: 재벌 정책 보도의 정권별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5호, 296-339.]
- Kim, K.-H., & Roh, K.-Y. (2011). A comparative study of news reporting about North Korea on newspapers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5(1), 361-386. [김경화-노기영 (2011). 한국 신문사의 이념과 북한 보도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361-386.]

- Kim, S.-J., & Jung, Y.-G. (201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bias of Korean press: Focused on the analysis of 19th presidential election coverag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88, 110-145. [김수정·정연구 (2018). 한국 언론의 정치편향 성격에 관한 연구: 19대 대선 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88호, 110-145.]
- Kim, Y.-W. (2011, May). The partisan nature of Korean media and the crisis of social communication. Paper presented at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Symposium and Seminar, 107-136. [김영욱 (2011, 5월).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사회적 소통의 위기>.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107-136.]
- Korea Research (2023). Conflict perception by group-2023: Ideological conflict is still the biggest axis of conflict in Korea. Korea Research Weekly Report, 231-2. Retrieved 6/6/23 from <https://hrcopinion.co.kr/archives/26687>. [한국리서치 (2023). 여론속의 여론: 2023 집단별 갈등인식 조사.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제231-2호). Retrieved 6/6/23 from <https://hrcopinion.co.kr/archives/26687>.]
- Kwon, H.-N. (2009).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television's coverage of the 15th and 16th presidential elections in Korea. *Korean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12, 45-91. [권혁남 (2009). 텔레비전의 15대, 16대 대통령선거 보도 비교 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12호, 45-91.]
- Lee, J.-H. (2015). The effect of news audience's biased media perception on their evaluation of the media's fairness: A comparative analysis among congenial, neutral, and hostile medi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9(1), 7-35. [이종혁 (2015). 언론 보도에 대한 편향적 인식이 공정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우호적, 중도적, 적대적 매체에 대한 비교 검증. <한국언론학보>, 59권 1호, 7-35.]
- Lee, J.-H., & Kil, W.-Y. (2019). News agenda classification and media diversity analysis using topic-modeling: Based on news on the presidential new year press conferenc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3(1), 161-196. [이종혁·길우영 (2019). 토픽모델링을 이용한 뉴스 의제 분류와 미디어 다양성 분석: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 뉴스 분석을 통해. <한국방송학보>, 33권 1호, 161-196.]
- Lee, J.-W., & Kim, S.-H. (2018). News frames in the coverage of fine-dust disaster: Application of structural topic modeling.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2(4), 125-158. [이준웅·김성희 (2018). 미세먼지 재해 보도의 프레임 분석: 구조적 주제모형(Structural Topic Modeling)의 적용. <한국언론학보>, 62권 4호, 125-158.]
- Lee, S.-H. (2023). Topic modeling for analyzing online comments: Comparing and validating LDA and

- BTM for capturing and classifying issu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7(4), 89-123. [이신행 (2023). 온라인 댓글의 주제 분석을 위한 토픽 모델링: 이슈 포착과 분류에 활용 가능한 LDA와 BTM의 비교와 검증. <한국언론학보>, 67권 4호, 89-123.]
- Lee, S.-Y., Yang, K.-M., & Lee, S.-W. (2017). Political bias of general programming TV channel: Focusing on news coverage in the 6th local election in 2014.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1(1), 149-183. [이승엽·양기문·이상우 (2017). 종합편성채널의 정치적 편향성 분석: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의 뉴스보도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1권 1호, 149-183.]
- Lee, W.-S. (2006). Ideological tendency and assessment of the government policy through reporting South-North Korea issue: Comparative analysis of editorials under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administration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Information*, 35, 329-360. [이원섭 (2006). 언론의 남북문제 보도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정부 정책 평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설 비교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35호, 329-360.]
- Lippmann, W. (1922). *Public opinion*. 이동근 (역) (2013). <여론>. 서울: 아카넷.
- Maier, D., Waldherr, A., Miltner, P., Wiedemann, G., Niekler, A., Keinert, A., ... & Adam, S. (2018). Applying LDA topic modeling in communication research: Toward a valid and reliable methodology.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12(2-3), 93-118.
- Mattoni, A., & Ceccobelli, D. (2018). Comparing hybrid media systems in the digital ag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alysis.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33(5), 540-557.
- Oh, D.-S., & Lee, S.-H. (2023). Analyzing the news agenda and frames of gender conflict in the 20s: Using topic modeling and text classification algorithms to explore media coverage of the “Men and Women in Their 20s” phenomenon in the run-up to the 2022 election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7(3), 160-205. [오다슬·이신행 (2023). 20대 젠더 갈등에 대한 뉴스 의제 및 프레임 분석: 토픽 모델링과 텍스트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한 2022년 선거 국면에서의 ‘이대남·이대녀’ 현상에 대한 언론보도 탐색. <한국언론학보>, 67권 3호, 160-205.]
- Park, J.-Y., Ahn, S.-C., & Park, S.-H. (2014). The diachronic change of election report in the coverage of the Korea Presidential Election since 1992. *Studies of Broadcasting Culture*, 26(2), 33-66. [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대통령 선거보도의 기사품질, 심층성, 공공성의 변화: 1992~2012년 국내 주요 신문 의 경우. <방송문화연구>, 26권 2호, 33-66.]
- Prior, M. (2007). *Post-broadcast democracy: How media choice increases inequality in political involvement*

and polarizes elec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nger, J. B. (2005). The political j-blogger: 'Normalizing' a new media form to fit old norms and practices. *Journalism*, 6(2), 173-198.
- Son, S.-H., Lee, K.-O., & Lee, S.-Y. (2014). Comparativ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frames of news articles on healthcare: Differences from administration changes and media's ideological orient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8(1), 306-329. [손승혜·이귀옥·이수연 (2014). 의료복지 기사의 주요 특성과 프레임 비교 분석: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정권의 변화와 언론사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이. <한국언론학보>, 58권 1호, 306-329.]
- Song, E., & Lee, G. (2014). Analysis of news coverage about president's interference with electoral process: For the period from president Young Sam Kim to President Myung Bak Le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8(3), 228-249. [송은지·이건호 (2014). 대통령의 선거개입 이슈 보도: 김영삼-이명박 대통령 시기 신문과 정권의 정파성에 따른 뉴스 분석. <한국언론학보>, 58권 3호, 228-249.]
- Song, H. (2015). Concept explication of partisanship and its implication on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Communication Theories*, 11(3), 176-211. [송현주 (2015). 정파성 개념의 정교화와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의 함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11권 3호, 176-211.]
- Won, H.-Y., & Yoon, S.-M. (2015). A content analysis on the fairness of the main news of Korean general programming TV stations: Centered around main news during the 18th pre-presidential election period.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9(1), 117-148. [원희영·윤석민 (2015). 종합편성채널의 보도 공정성에 관한 연구: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메인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권 1호, 117-148.]
- Yoo, S.-J., & Lee, G. (2017). A study on the tone difference among 4 general programming cable channel's news programs: content analysis of news articles about free welfare issu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1(1), 7-35. [유수정·이건호 (2017). 메인 뉴스 논조 차별화가 드러낸 한국 중편 저널리즘의 지형. <한국언론학보>, 61권 1호, 7-35.]
- Yoon, Y.-C., Kim, K.-M., & Kim, J.-H. (2015). Opinion diversity and ideological geography of the news media a content analysis of 'Economic Democracy' issue.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Research*, 89, 35-64. [윤영철·김경모·김지현 (2015). 의견다양성을 통해 본 언론매체의 이념지형도: '경제민주화' 이슈 보도의 의견 분석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89호, 35-64.]

최초 투고일 2023년 12월 01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5월 27일
논문 수정일 2024년 05월 29일